

중고시기 중국어 부정문 특징 재고찰

현성준*

◁ 목 차 ▷

- I. 서언
 - II. 구성 성분상의 특징
 - 1. 이음절 부정사의 생성
 - 2.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사 ‘莫’의 생성
 - III. 구조상의 특징
 - 1. 특수한 성격의 ‘부사+부정사’ 조합 생성
 - 2. 대명사 목적어의 후치현상 비중 증가
 - IV. 결어
-

I. 서언

본고에서 지칭하는 중고시기 중국어는 동한(東漢)부터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까지의 문헌상에 반영된 중국어를 말한다.¹⁾ 중국어의 역사적인 흐름으로 살펴볼 때, 중고시기 중국어는 상고시기 중국어에서 근대시기 중국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고시기의 중국어는 상고시기 중국어의 특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새로운 언어적인 특징이 이 시기에 생겨나 다음 근대시기로 넘어가면서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도 한다.

중고시기 부정문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잘 엿볼 수 있어, 필자는 이전에 《세설신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미래대학 교양학부 조교수

1) 본고에서 언급한 중국어사의 시기 구분은 朱慶之(1992)를 따름.

朱慶之《佛典與中古漢語詞彙研究》: 「所謂“中古”本是一個比較含混的時段概念, 我們用來指東漢魏晉南北朝。由此上溯, 秦代以前是上古時期, 當中的西漢是上古至中古的過度; 由此向下, 晚唐五代以後是近代時期, 當中的隋唐是中古至近代的過渡」(《佛典與中古漢語詞彙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2), 1쪽.

어(世說新語))를 가지고 중고시기 부정문의 대략적인 특징을 고찰한 바 있다. 그러나 편폭이 그리 크지 않은 《세설신어》 하나만을 가지고 중고시기 부정문의 특징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했다고 사료되어, 이번에는 기존 연구 성과의 틀 위에서 중고시기의 또 다른 대표적인 언어자료라 할 수 있는 《논형(論衡)》과 《삼국지(三國志)》를 연구대상에 추가하여, 중고시기 부정문의 특징을 한층 심도 있게 재고찰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 올려 중고시기 부정문의 특징을 더욱 일반화시켜 보고자 한다.

II. 구성 성분상의 특징

서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분석 자료로는 《논형》²⁾, 《삼국지》³⁾, 《세설신어》⁴⁾ 등 세 가지 문헌을 선정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세 문헌에서 보이는 중고시기 부정문⁵⁾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⁶⁾

1. 이음절 부정사의 생성

복음절사⁷⁾가 대량으로 만들어진 것은 중고시기 중국어 어휘체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⁸⁾ 상고시기의 많은 단음절사들이 중고시기에 와

2) 본고는 王充〔東漢〕著, 黃暉 撰, 《論衡校釋》北京, 中華書局, 1990을 텍스트로 삼음.

3) 본고는 陳壽〔晉〕著, 裴松之〔宋〕注, 《三國志》北京, 中華書局, 1982를 텍스트로 삼음.

4) 본고는 張萬起, 劉尙慈 譯注, 《世說新語譯注》北京, 中華書局, 1998을 텍스트로 삼음.

5) 이하에서는 ‘세 문헌에 보이는 부정문’을 ‘중고시기 부정문’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6) 본고에서 사용된 《세설신어》와 관련된 예들은 玄盛峻 <<世說新語>>에 나타난 중고시기 중국어 부정문 특징 고찰: 《中國言語研究》2010年, 第33輯에서 참조.

7)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음절사라 하고, 두 개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음절사라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어에서 복음절사의 대다수는 이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복음절사와 관련된 서술들은 이음절사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8) 중고시기 복음절사가 대량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외래어의 영향(外語的影響)’과 ‘형식미와 정밀화의 필요(形式美與精密化的需要)’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柳士鎮《魏晉南北朝歷史語法》(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2), 268-269쪽 참조.

서는 복음절사로 대체되게 되었는데⁹⁾, 부정사 체계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이음절로 이루어진 부정사가 이 시기에 생겨나게 된다.

중고시기 복음절사가 생성되는 주요 방식으로는 ‘복합(複合)’과 ‘파생(派生)’이 있는데¹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합(複合)’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음절 부정사

‘복합(複合)’은 중고시기 중국어에서 새로운 부정사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로, 하나의 부정사 어근에 다른 부사 어근이 결합하는 방식이다.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복합’의 방식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음절 부정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未嘗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이음절 부정사 ‘未嘗’이 사용된 문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父未嘗咎。《論衡·自紀》(아버지는 때린 적이 없다)
- (2) 母未嘗非。《論衡·自紀》(어머니는 질책한 적이 없다)
- (3) 又未嘗顯言得失。《三國志·魏志·孫資傳》(또한 얻고 잃음을 드러내어 말한 적이 없다)
- (4) 未嘗有所統御。《三國志·蜀志·糜竺傳》(군대를 통솔한 적이 없다)
- (5) 未嘗夢乘車入鼠穴。《世說新語·文學》(아직 수레를 타고 쥐구멍에 들어가는 꿈을 꾸 적은 없소)
- (6) 口未嘗言“錢”字。《世說新語·規箴》(입으로는 ‘돈’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9) 실제로 편폭이 비슷한 상고시기의 《좌전(左傳)》(약 20만자)와 중고시기의 《논형》(약 21만자)에서 나오는 이음절사의 수를 비교하여 볼 때 각각 284개와 2000여개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向熹《簡明漢語史(上)》(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3), 495쪽 참조.

10) ‘복합(複合)’과 ‘파생(派生)’ 관련 서술은 柳士鎮《魏晉南北朝歷史語法》(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2), 20-21쪽 참조.

이음절 부정사 ‘未嘗’은 부정사 어근 ‘未’에 부사 어근 ‘嘗’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고시기 복합의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음절 부정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논형》에서는 22회, 《삼국지》에서는 26회, 《세설신어》에서는 11회 출현한다.

② 未曾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이음절 부정사 ‘未曾’이 사용된 문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 今未曾有爲天所厭者也。《論衡·問孔》(현재까지 하늘에 깔려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 (8) 亂禍之興作, 未曾不由廢立之間也。《三國志·蜀志·劉封傳》(난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계승자를 폐출하고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 (9) 友聞白羊肉美, 一生未曾得吃。《世說新語·任誕》(내가 하얀 양의 고기가 맛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일생동안 먹어본 적은 없소.)

이음절 부정사 ‘未曾’은 부정사 어근 ‘未’에 부사 어근 ‘曾’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未嘗’에 비해서는 중고시기에 사용빈도가 그리 많지 않은데, 《논형》에서는 4회, 《삼국지》에서는 2회, 《세설신어》에서는 1회 나타나고 있다.

③ 不曾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이음절 부정사 ‘不曾’이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 (10) 一生不曾見此人。《世說新語·文學》(일생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소)

이음절 부정사 ‘不曾’은 부정사 어근 ‘不’에 부사 어근 ‘曾’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未曾’과 마찬가지로 중고시기에 그 사용빈도는 그리 많지 않은데, 중고시기 세 문헌 중에서는 《세설신어》에서만 1회 나타나고 있다.

2) ‘파생(派生)’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음절 부정사

‘파생(派生)’은 중고시기 중국어에서 새로운 이음절 부정사가 만들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로, 하나의 부정사 어근에 다른 접사가 결합하는 방식이다.

중고시기 중국어에서 ‘파생’의 방식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음절 부정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不復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이음절 부정사 ‘不復’가 사용된 문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1) 竊見當今年少，不復以學問爲本。《三國志·魏志·董昭傳》(내 사건으로 볼 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학문을 근본으로 삼지 않는 것 같소)
- (12) 若陛下不復考其終始，必以違衆忤世爲奉公。《三國志·魏志·杜恕傳》(만약 폐하께서 그 일의 전 과정을 조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중의 마음에 위배되고 사회에 저촉되는 것을 공적으로 받드는 것처럼 될 겁니다)
- (13) 阿奴今日不復減向子期。《世說新語·品藻》(당신의 오늘 모습은 向子期에 뒤떨어지지 않소)
- (14) 此不復似世中人!《世說新語·容止》(이 사람은 세속의 사람이 아닌 것 같소)

‘復’는 본래 부사이지만, 동한(東漢)시기부터, 일부의 ‘復’는 부사 뒤에 붙어 더 이상은 ‘또’, ‘다시’ 등의 실제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음절을 구성하는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¹¹⁾

이음절 부정사 ‘不復’는 부정사 어근 ‘不’에 접사 ‘復’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고시기 ‘파생’의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음절 부정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논형》에서는 아직 그 용례가 보이지 않지만, 《삼국지》에서는 7회, 《세설신어》에서는 총 14회 출현하고 있다.

11) 柳士鎮, 《魏晉南北朝歷史語法》,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2, 237쪽 참조.

이 밖에 동한시기에 접사로 발전된 것으로는 ‘自’가 있지만, 접사 ‘自’가 부정사 어근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음절 부정사는 보이지 않는다.

② 非復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이음절 부정사 ‘非復’이 사용된 문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5) 江南之地非復大王之有也。《三國志·蜀志·鄧芝傳》(강남의 땅은 대왕의 것이 아닙니다)
- (16) 殷仲文還爲大司馬咨議, 意似二三, 非復往日。《世說新語·黜免》(殷仲文은 돌아와서 大司馬의 咨議參軍이 되었으나,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니, 지난 날 같지 않았다)

이음절 부정사 ‘非復’는 부정사 어근 ‘非’에 접사 ‘復’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不復’에 비해서는 사용빈도가 그리 많지 않은데, 《논형》에서는 아직 그 용례가 보이지 않고, 《삼국지》와 《세설신어》에서 각각 3회 출현한다.

③ 無復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이음절 부정사 ‘無復’가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 (17) 昔霍光定計, 百僚同心, 無復是過。《三國志·吳志·孫休傳》(옛날 霍光이 계획을 세웠을 때도 조정의 모든 관료가 한마음이 되었지만, 이를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 (18) 非羽所忌, 無復是過。《三國志·吳志·陸遜傳》(關羽가 꺼림칙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 이보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 (19) 舫至狹小, 而又大漏, 殆無復坐處。《世說新語·德行》(배가 매우 협소하고 물이 많이 새서, 거의 앉을 곳이 없었다)

이음절 부정사 ‘無復’는 부정사 어근 ‘無’에 접사 ‘復’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고시기에 사용빈도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논형》에서는 아직 그 용례가 보이지 않고, 《삼국지》에서 3회, 《세설신어》에서 1회 사용되고 있다.

2.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부사 ‘莫’의 생성

‘莫’는 상고시기와 중고시기 모두 자주 사용되던 것으로, 두 가지 품사를 지니고 있다.

첫째, ‘莫’는 불특정 대명사로서, ‘아무도’, ‘무엇이든’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莫我知也夫!《論語·憲問》(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 (2) 殺有禮, 禍莫大焉。《左傳·襄公三十年》(예가 있는 사람을 죽인다면, 그 화는 무엇보다 크다)

예문(1)에서 ‘莫’는 ‘아무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불특정 대명사이고, 예문(2)에서 ‘莫’는 ‘무엇이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불특정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莫’는 부정부사로서도 사용되는 데, 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3) 人知其一, 莫知其他。《詩經·小雅·小旻》(사람은 그 하나를 알지만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 (4) 羣臣皆莫敢言。《史記·蕭相國世家》(군신이 모두 감히 말을 못하였다)
- (5) 莫令人見也。《三國志·吳志·陸遜傳》(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 (6) 莫得淫祀!《世說新語·德行》(음란한 신은 제사 지내지 말아라)

부정부사로 사용되는 ‘莫’는 그 의미와 기능상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예문(3)과 예문(4)에서와 같이 부정부사 ‘莫’가 일반적인 부정을 나타내어 부정부사 ‘不’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고, 예문(5)와 예문(6)에서처럼,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을 나타내기도 하여, 현대중국어의 ‘別’나 ‘不要’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상고시기 중국어에서 ‘莫’는 대부분 불특정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일반 부정부사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특히 일반 부정부사의 용법 중에서도 금지를 나타내는 용법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¹²⁾

12) 상고시기 《논어》, 《좌전》, 《맹자》 세 문헌에 나타나는 ‘莫’의 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玄盛峻 《世說新語》에 나타난 중고시기 중국어 부정문 특징 고찰: 《中國言語研究》2010年, 第33輯, 199쪽 〈표1〉 재인용).

太田辰夫(1958/2003: 280)에 의하면, ‘莫’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사의 용법은 육조(六朝)시기에 출현하였다고 하였는데, 《삼국지》와 《세설신어》에서도 이러한 중고시기 부정문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¹³⁾

다음은 《삼국지》와 《세설신어》에서 금지의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부사 ‘莫’가 사용된 문장들이다.

- (7) 君有急病見於面, 莫多飲酒。《三國志·魏志·華陀傳》(당신은 중병이 걸려 있어 얼굴에 나타나니 술을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 (8) 願早定大計, 莫用衆人之議也。《三國志·吳志·魯肅傳》(원컨대 빨리 큰 계획을 정하시기 바라며, 중인들의 뜻은 따르지 마십시오)
- (9) 以爾爲柱石之用, 莫傾人棟梁! 《世說新語·規箴》(너를 초석으로 사용할 지언정 다른 사람의 마룻대와 들보는 뒤집어 얹지 말아라)
- (10) 我以第一理期卿, 卿莫負我! 《世說新語·寵禮》(내가 제일 중요한 일을 당신에게 맡길테니 내 뜻을 저버리지 마시오)

예문(7)에서 예문(10)까지는 모두 《삼국지》와 《세설신어》에서 ‘莫’가 부정부사로써 금지 부정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莫’의 용례는 《삼국지》에서 6회, 《세설신어》에서 5회 출현한다.¹⁴⁾

용법	문헌		
	논어	좌전	맹자
불특정 대명사 용법	7	85	46
일반 부정사 용법	0	1	1
합계	7	86	47

13) 실례로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한시기 《논형》에 ‘莫’가 일반 부정용법으로 사용된 예는 4회 출현하지만, 금지용법으로 사용된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14) 금지부정을 나타내는 이러한 ‘莫’의 용법은 중고시기의 중역불경에서 더 많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莫隨貪心, 莫隨怒心。(東漢曇果共康孟詳譯《中本起經》)
 若想行者菩薩護行, 當莫隨其中。(東漢支婁迦讖譯《道行般若經》)
 莫使生嫉於人也。(東漢安玄共嚴佛調譯《法鏡經》)
 汝但慎前, 莫憂後事。(三國吳支謙譯《撰集百緣經》)
 當行法施, 莫行思欲之施。(苻秦曇摩難提譯撰《增壹阿含經》)
 救其母命, 而語父言, 莫絕殺我。(北朝慧覺等譯《賢愚經》)

Ⅲ. 구조상의 특징

1. 특수한 성격의 ‘부사+부정사’ 조합 등장

중국어에서 ‘부사+부정사’의 조합은 상고시기부터 자주 나타나는 구조로서, 이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부사가 부정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부사는 의미와 어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정사로부터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수식 구조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¹⁵⁾

그러나 중고시기에 들어와서 일부 ‘부사+부정사’의 조합은 그 용법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부정사 앞에 사용된 부사가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사는 부정사로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독립성을 빼앗기고, 부정사와 혼연일체가 되어 부정사의 강조형식으로 편입되게 된다.

본 절에서는 부사가 원래 가지는 의미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이러한 강조형식으로 편입된 ‘부사+부정사’ 조합이 중고시기 중국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¹⁶⁾

1) 시간부사 + 부정사

①. ‘初’ + 부정사

중고시기 중국어에서 시간부사 ‘初’와 부정사의 조합이 사용된 문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艾初不稱謝。《三國志·魏志·鄧艾傳》(鄧艾는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 (2) 與王氏殊隔, 初不見其所述。《三國志·蜀志·李譔傳》(王氏와 매우 떨어져 있어, 그가 저술한 것은 본 적도 없었다)
- (3) 昔胤年少, 初無功勞。《三國志·吳志·周瑜傳》(이전에 周胤이 어렸을 때

15) 朱慶之, 〈論中古近代漢語中的“副詞+否定詞”組合〉, 《漢語教學與研究文集》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5, 참조.

16) 본 장에 있어서의 주요 이론적인 내용은 葛佳才, 《中古副詞系統研究》長沙, 岳麓書社, 2005, 172-226쪽 참조.

- 는 조금도 공로를 세운 적이 없었다)
- (4) 中丞初不視。《世說新語·方正》(中丞은 조금도 쳐다보지 않았다)
- (5) 羅既至, 初不問郡事。《世說新語·規箴》(羅는 도착한 후에 군중의 일은 조금도 물어보지 않았다)
- (6) 太傅在軍, 前後初無損益之言。《世說新語·規箴》(太傅는 군중에 있는 동안내내 비평하는 말은 조금도 한 적이 없다)

‘初’는 원래 과거의 일정한 시간부터 말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적인 단계를 부정하는 ‘본래’ 라는 의미를 지닌 시간부사였으나, 중고시기에 들어와서 추상적인 어기를 강조하는 기능이 강화되어, 결국은 부정사와의 조합에서 ‘조금도 ~이 아니다(없다)’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시간부사 ‘初’와 부정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형식으로는 ‘初不’와 ‘初無’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논형》에서는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으나, 《삼국지》와 《세설신어》에는 그 용례가 보인다. 그 중 ‘初不’의 출현 횟수가 많아 《삼국지》에서 9회, 《세설신어》에서 12회 출현하고, ‘初無’의 형식은 《삼국지》와 《세설신어》에서 각각 1회씩만 출현한다.

② ‘素’ + 부정사

중고시기 중국어에서 시간부사 ‘素’와 부정사의 조합이 사용된 문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 素不善卓, 卓心怨之。《三國志·魏志·董卓傳》(조금도 董卓에게는 잘해주지 않아, 董卓은 그를 원망했다)
- (8) 存素不服龐統。《三國志·蜀志·楊戲傳》(張存은 龐統에게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 (9) 忠之名望, 素非關、馬之倫也。《三國志·蜀志·黃忠傳》(黃忠의 명망은 결코 關羽와 馬超에 비할 것이 못 된다)
- (10) 璋既不武, 又素無預備。《三國志·蜀志·龐統傳》(劉璋은 군사적 능력이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방비 태세도 전혀 없었다)
- (11) 王平子素不知眉子。《世說新語·識鑒》(王平子는 조금도 眉子를 알아주지 않았다)
- (12) 丞相素不能飲。《世說新語·汰侈》(丞相은 본디 조금도 술을 마시지 못하

였다)

‘素’는 처음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점을 부정하는 시간부사였으나, 중고시기에 들어와서 ‘初’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어기를 강조하는 기능이 강화되었다.

시간부사 ‘素’와 부정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형식으로는 ‘素不’, ‘素非’, ‘素無’ 세 가지가 있는데, 《논형》에서는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으나, 《삼국지》와 《세설신어》에는 그 용례가 보인다. 그 중 ‘素不’의 출현 횟수가 많아 《삼국지》에 6회, 《세설신어》에 2회 출현하고, ‘素非’, ‘素無’의 형식은 《삼국지》에서만 각각 1회씩 출현한다.

2) 정도부사 + 부정사

① ‘略’ + 부정사

중고시기 중국어에서 정도부사 ‘略’와 부정사의 조합이 사용된 문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3) 吾前後相當死者過百人，略無錯也。《三國志·魏志·管輅傳》(내가 일생 동안 사람의 죽음을 예측한 것이 백 건이 넘는데, 한번도 틀린 적이 없다)
- (14) 平民屯居，略無所入。《三國志·吳志·諸葛恪傳》(평민은 군영에 거주하여 거두어 들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 (15) 曄在朝，略不交接待時人。《三國志·魏志·劉曄傳》(劉曄은 조정에서는 당시의 인사들과 일절 교류하지 않았다)
- (16) 譬如寫水著地，正自縱橫流漫，略無正方圓者。《世說新語·文學46》(예를 들어, 물을 땅바닥에 부으면 단지 세로 가로로 멋대로 흘러 퍼져, 정방형이나 정확한 원형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 (17) 游宴集聚，略無不同。《世說新語·雅量》(다니고 만나고 모이는데 있어, 서로 다른 것이 조금도 없었다)
- (18) 兄子濟每來拜墓，略不過叔。《世說新語·賞譽》(兄子王濟는 매번 묘에 와서 참배를 할 때마다 삼촌에게는 한번도 가지 않았다)

정도부사 ‘略’도 중고시기에 들어와서 부정사와 함께 사용되어, 그 강조 기능이

강화되어, ‘완전히 ~이 아니다(없다)’, ‘전혀 ~이 아니다(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정도부사 ‘略’와 부정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형식으로는, ‘略無’와 ‘略不’가 있는데, 《논형》에서는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으나, 《삼국지》와 《세설신어》에는 그 용례가 보인다. 그 중 ‘略無’는 《삼국지》에 7회, 《세설신어》에 4회 출현하고, ‘略不’는 《삼국지》에 3회, 《세설신어》에서 2회 출현한다.

② ‘都’ + 부정사

중고시기 중국어에서 정도부사 ‘都’와 부정사의 조합이 사용된 문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9) 袁宏始作『東征賦』，都不道陶公。《世說新語·文學》(袁宏이 『동정부』를 지었을 때, 陶公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 (20) 何以都不聞消息?《世說新語·傷逝》(어찌하여 그의 소식을 조금도 듣지 못한단 말인가?)
- (21) 便索輿來奔喪，都不哭。《世說新語·傷逝》(곧바로 수레를 얻어 상을 치루러 와도 조금도 울지 않았다)
- (22) 陶公疾篤，都無獻替之言。《世說新語·言語》(陶公은 위독해졌을 때, 군주를 보좌하기 위해 드리는 신하의 말을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 (23) 於是悉用木屑覆之，都無所妨。《世說新語·政事》(그래서 톱밥을 사용하여 그곳에 퍼놓으니, 조금도 지체됨이 없었다)
- (24) 弟子都未解，阿彌那得已解?《世說新語·文學》(나도 전혀 몰랐는데, 阿彌는 어떻게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까?)

정도부사 ‘都’는 중고시기에 들어와서 부정사와 함께 사용되어, 그 강조 기능이 강화되어, ‘완전히 ~이 아니다(없다)’, ‘전혀 ~이 아니다(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정도부사 ‘都’와 부정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都不’, ‘都無’, ‘都未’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논형》과 《삼국지》에서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세설신어》에서 ‘都不’는 가장 많은 8회 출현하고, ‘都無’는 5회, ‘都未’는 1회 출현한다.

③ ‘ㅍ’ + 부정사

중고시기 중국어에서 정도부사 ‘ㅍ’와 부정사의 조합이 사용된 문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5) 然人心苦不能盡。《三國志·蜀志·董和傳》(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다)
- (26) 人言苦不可信。《三國志·吳志·吳主傳》(사람의 말은 모두 믿을 수는 없다)
- (27) 國家職司，常苦不充。《三國志·吳志·諸葛恪傳》(국가의 직관을 항상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예(25)에서 예(27)의 정도부사 ‘ㅍ’는 정도와 범위를 나타내어 ‘모두’, ‘전부’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의미는 ‘ㅍ’의 원래 의미인 ‘다하다’의 뜻에서 어법화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정도부사 ‘ㅍ’와 부정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ㅍ不’ 형식만이 보이고, 이 용례는 《삼국지》에서만 5회 출현한다.

3) 어기부사 + 부정사

① ‘을’ + 부정사

중고시기 중국어에서 어기부사 ‘을’과 부정사의 조합이 사용된 문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8) 論春秋者，曾不知難。《論衡·順鼓》(《춘추》를 논한다는 사람이 정말이지 따져 비난한다는 것도 모른다)
- (29) 今臣曾不能少凝聖聽。《三國志·魏志·陳羣傳》(지금 소인은 폐하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덜하면서 들으실 수 있게 할 수가 정말 없습니다)
- (30) 尙位過重，曾無一言以諫陛下。《三國志·吳志·孫綝傳》(全尙의 지위가 매우 중요하여, 폐하에게 간언하는 어떠한 말도 한마디 안했습니다)

17) 董志翹, 蔡鏡浩, 《中古虛辭語法例釋》長春, 吉林教育出版社, 1994, 324-325쪽 참조.

- (31) 如此人，曾不得四十。《世說新語·傷逝》(나 같은 이런 사람은 정말이지 마흔 살까지 밖에 못 산단 말이오)
 (32) 語言辭旨，曾無愧色。《世說新語·文學》(언어와 논지에 있어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다)

여기부사 ‘曾’은 중고시기에 들어와서 부정사와 함께 사용되어, 그 강조 기능이 강화되어, 그 어기를 완전 부정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여기부사 ‘曾’과 부정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曾不’와 ‘曾無’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曾不’의 형식은 《논형》에서 2회, 《삼국지》에서 6회, 《세설신어》에서 4회 출현하고, ‘曾無’는 《삼국지》에서 4회, 《세설신어》에서 3회 출현한다.

② ‘殊’ + 부정사

중고시기 중국어에서 여기부사 ‘殊’와 부정사의 조합이 사용된 문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3) 吏殊不知其東萊人也。《三國志·吳志·太史慈傳》(관리는 그가 東萊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34) 殊無神思獨至之異也。《三國志·蜀志·杜瓊傳》(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신기하고 독특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35) 殊不爾，衛自是理義人。《世說新語·品藻》(정말이지 이렇게 않습니다. 衛는 본래부터 의리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36) 新婦神色卑下，殊不似公休。《世說新語·賢媛》(신부의 안색을 보니 매우 천박한 것이, 정말이지 公休와 하나도 닮은 것이 없소)
 (37) 吾常以卿言爲意，殊未有得。《世說新語·賞譽》(나는 일찍이 너의 말을 중시하여 왔는데, 정말이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여기부사 ‘殊’도 중고시기에 들어와서 부정사와 함께 사용되어, 강조 기능이 강화되어, 어기를 완전 부정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여기부사 ‘殊’와 부정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형식으로는 ‘殊不’, ‘殊無’, ‘殊未’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殊不’는 《삼국지》에서 1회, 《세설신어》에서 10회 출현하며, ‘殊無’는 《삼국지》에서만 1회 보이고, ‘殊未’는 《세설신어》에서만 1회 나타난다.

③ ‘了’ + 부정사

중고시기 중국어에서 어기부사 ‘了’와 부정사의 조합이 사용된 문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8) 了不異人意。《世說新語·文學》(내 생각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 (39) 君義言了不長進。《世說新語·文學》(그대의 철학 담론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네)
- (40) 戒湛然不動, 了無恐色。《世說新語·雅量》(戒은 담담하다는 듯 움직이지 않았고, 무서운 기색이라곤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 (41) 了無慚色。《世說新語·任誕》(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었다)

어기부사 ‘了’와 부정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了不’와 ‘了無’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논형》과 《삼국지》에서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了不’는 《세설신어》에서 5회 출현하고, ‘了無’는 4회 출현한다.

4) 범위부사 + 부정사

① ‘並’ + 부정사

중고시기 중국어에서 범위부사 ‘並’과 부정사의 조합이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 (42) 人主心並不能責。《論衡·答寧》(사람의 주된 마음은 결코 책망할 수 없다)
- (43) 時朱然、徐盛等皆在所部, 並不伏也。《三國志·吳志·周泰傳》(당시에朱然과徐盛 등은 모두 그가 지휘하는 지역에 있어 모두 다 복종하지 않았다)

범위부사 ‘並’은 원래 긍정문에서 전체 범위에 대한 긍정을 나타내었는데, 부정사와 연이어 사용되면서 부정사 뒤의 부분이 가리키는 범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강조하게 된다.

범위부사 ‘並’과 부정사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並不’형식이 있는데, 《논

형》과 《삼국지》에서 각각 1회씩 나타나고 있다.

2. 대명사 목적어의 후치현상 비증 증가

중국어 부정문에서 동사 술어와 대명사 목적어로 구성되는 어순은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술어의 앞에 위치하는 ‘부정부사(부사어)+대명사(목적어)+동사(술어)’구조와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술어의 뒤에 위치하는 ‘부정부사(부사어)+동사(술어)+대명사(목적어)’구조가 있다.

일찍이 馬建忠은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목적어로 올 경우에는 모두 동사의 앞에 온다고 언급한 바 있다.¹⁸⁾ 그러나, 실제 상고시기와 중고시기 중국어의 실례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馬建忠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고시기 중국어 부정문에 있어서 대명사가 목적어로 올 경우에는 동사의 앞에 오는 경우가 많이 출현하긴 하지만, 개별 부정사와 사용되는 대명사의 종류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¹⁹⁾

후에 毛遠明이 중국어 부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어의 후치현상은 동한(東漢)후기 실제 구어 속에서 이미 완성되었다²⁰⁾고 하였는데, 다음에서는 중고시기 세 문헌에 사용된 실제 용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어의 전치, 후치 현상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²¹⁾

1)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술어의 앞에 위치하는 전치구조

중고시기의 부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술어 앞에 오는 ‘전치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惟外動字加弗辭，或起詞爲‘莫’、‘無’諸泛指代字，其止詞爲代字者，皆先動字。”(馬建忠, 《馬氏文通》北京, 商務印書館, 1983, 156쪽 참조)

19) 상고시기 중국어 부정문에서 동사술어와 대명사 목적어의 어순 관계는 玄盛峻 〈상고시기 부정문에 사용된 대명사 목적어의 종류와 그 위치 연구〉; 《中國言語研究》2010年, 第32輯 참조할 것.

20) 毛遠明 〈古漢語否定句中代詞賓語後置的完成時代〉; 《語文月刊》1990年 第11, 12期 참조.

21) 본 절과 관련된 내용과 예문은 玄盛峻 〈중고시기 부정문에 사용된 대명사 목적어의 종류와 그 위치 연구〉; 《中國語文學論集》2011年, 第67號 참조.

- (1) 世人不之知，猶玉在石中也。《論衡·講瑞》(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식별해 내지 못하는 것은 옥이 돌 속에 있는 것과 같다)
- (2) 議定，未之即與。《論衡·感類》(논의가 결정되었으나, 바로 그것을 주지는 않았다)
- (3) 雖古人所述，不是過也。《三國志·魏志·王基傳》(비록 예전 사람이 서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넘어설 수는 없다)
- (4) 其族兄芝，衆未之知。《三國志·魏志·王基傳》(그의 族兄 司馬芝에 대해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 (5) 坐者未之信。《世說新語·術解2》(앉아 있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 (6) 奕弗之疑。《世說新語·簡傲8》(奕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술어 앞에 위치하는 ‘전치구조’는 《논형》 부정문에서 9회, 《삼국지》 부정문에서 18회, 《세설신어》 부정문에서 4회 출현하는 데, 모두 합치면 총 31회로 이는 세 문헌에서 술어와 대명사 목적어로 구성된 전체 162개의 부정문 중에서 19.1%의 비중을 차지한다.

상고시기의 《논어》, 《좌전》, 《맹자》 세 문헌을 가지고 조사한 자료²²⁾에 따르면 전체 132개의 부정문 중에서 전치구조가 76회로 5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비교하여 본다면 중고시기 부정문의 ‘전치구조’의 비중은 상고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술어의 뒤에 위치하는 후치구조

중고시기의 부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술어 뒤에 오는 ‘후치구조’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 牛馬不敢踐之。《論衡·吉驗》(소나 말이 감히 그것을 짓밟을 수는 없다)
- (8) 此尙爲近，未足以言之。《論衡·異虛》(이것은 그래도 가까워서, 그것을 설명해주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
- (9) 北走胡，不置汝也！《三國志·魏志·武帝紀》(북쪽으로 향해 胡로 도망을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22) 玄盛峻 〈상고시기 부정문에 사용된 대명사 목적어의 종류와 그 위치 연구〉: 《中國言語研究》2010年, 第32輯 참조.

- (10) 則弗爲之矣。《三國志·魏志·武帝紀》(그렇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 (11) 勿以開美求之。《世說新語·嘗譽》(낙관적이고 아름다움만을 가지고 그에게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 (12) 我以第一理期卿, 卿莫負我。《世說新語·寵禮》(내가 제일 중요한 일을 당신에게 맡길테니 내 뜻을 저버리지 마시오)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어가 동사술어 뒤에 위치하는 ‘후치구조’는 《논형》 부정문에서 51회, 《삼국지》 부정문에서 58회, 《세설신어》 부정문에서 22회 출현하는 데, 모두 합치면 총 131회로 이는 세 문헌에서 대명사 목적어와 술어로 구성된 전체 162개의 부정문 중에서 80.9%의 비중을 차지한다.

상고시기의 《논어》, 《좌전》, 《맹자》 세 문헌을 가지고 조사한 자료²³⁾에 따르면 전체 132개의 부정문 중에서 후치구조가 56회로 4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비교하여 본다면 중고시기 부정문에서 ‘후치구조’의 비중은 상고시기에 비해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IV. 결어

본고에서는 중고시기 중국어 연구에 있어 대표적인 문헌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논형》, 《삼국지》, 《세설신어》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또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중고시기 부정문의 특징을 고찰하여 보았다.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중고시기 부정문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구성 성분상의 특징으로 살펴볼 때, 중고시기 중국어 부정문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음절 부정사의 생성을 들 수 있는데, 중고시기에 들어와서는 ‘복합’ 부정 ‘파생’의 방식을 거쳐 ‘未嘗’, ‘不曾’, ‘未曾’, ‘不復’, ‘非復’, ‘無復’ 등의 새로운 이음절 부정사가 새로 나타났다. 또한, 상고시기에는 거의 대부분 불

23) 玄盛峻 〈상고시기 부정문에 사용된 대명사 목적어의 종류와 그 위치 연구〉: 《中國言語研究》2010年, 第32輯 참조.

특정 대명사로 사용되었던 ‘莫’가 중고시기에 들어와서는 금지 부정의 용법으로 새롭게 사용되었다.

두 번째로 구조상의 특징으로 살펴볼 때, 상고시기부터 많이 사용되어졌던 ‘부사 + 부정사’의 조합 중 일부는 중고시기에 들어와서, 그 용법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부정사 앞에 사용된 부사가 부정사로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독립성을 빼앗기고, 부정사와 혼연일체가 되어 부정문에 대한 하나의 강조형식으로 편입되게 된다. 또한, 중국어 부정문에서 동사 술어와 대명사 목적어로 구성되는 어순은 상고시기에 전치구조가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중고시기에 와서는 후치구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중고시기의 부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어의 후치현상이 기본적으로는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董志翹, 蔡鏡浩, 《中古虛辭語法例釋》長春, 吉林教育出版社, 1994
- 葛佳才《中古副詞系統研究》長沙, 岳麓書社, 2005
- 高育花《中古漢語副詞研究》合肥, 黃山書社, 2007
- 馬建忠《馬氏文通》北京, 商務印書館, 1983
- 毛遠明〈古漢語否定句中代詞賓語後置的完成時代〉;《語文月刊》1990年 第11,12期
- 柳士鎮《魏晉南北朝歷史語法》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2
- 楊伯峻, 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北京, 語文出版社, 2001
- 王力《漢語語法史》〔王力文集·第十一卷〕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0
- 張萬起, 劉尚慈 譯注《世說新語譯注》北京, 中華書局, 1998
- 張雙棣 等 編著《古代漢語知識教程》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 周光午〈先秦否定句代詞賓語位置問題〉;《語文論集》1959年 第3集
- 朱慶之《佛典與中古漢語詞彙研究》臺北, 文津出版社, 1992
- 朱慶之〈論中古近代漢語中的“副詞+否定詞”組合〉;《漢語教學與研究文集》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5
- 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 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 向熹《簡明漢語史(上)》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3
- 현성준 〈《世說新語》에 나타난 중고시기 중국어 부정문 특징 고찰〉;《中國言語研究》第33輯, 2010.11

현성준 〈상고시기 부정문에 사용된 대명사 목적어의 종류와 그 위치 연구〉: 《中國言語研究》第32輯, 2010.7

현성준 〈중고시기 부정문에 사용된 대명사 목적어의 종류와 그 위치 연구〉: 《中國語文學論集》第67號, 2011.4

【中文提要】

本文考察了中古時期《論衡》、《三國志》和《世說新語》三種文獻所反映的中古漢語否定句的一些特徵。

其結論如下：

從否定句的結構成分來看，中古時期，漢語否定句的發展，最明顯的變化就是否定詞的雙音化。在中古漢語三種文獻中通過“複合”和“派生”這兩種途徑新產生的雙音節否定詞有“未嘗”、“不曾”、“未曾”、“不復”、“非復”、“無復”。還有，“莫”在上古時期文獻中，表示禁止否定的用法極為少見。但是在中古時期的文獻中卻有很多用例。

從否定句的結構來看，到了中古時期，“副詞+否定詞”組合用法有所變化，其中用在否定詞前的副詞，不再是原來的詞彙意義，而是新的意義。還有，在中古時期三種文獻的否定句中，代詞賓語後置的比重比上古時期明顯增加了。

【主題語】

中古漢語(Middle Archaic Chinese), 句型(Sentence Pattern), 否定句(Negative Sentence), 特徵(Characteristic), 論衡(Lunheng), 三國志(Sanguozhi), 世說新語(Shishuoxinyu)

투고일: 2012. 1. 15 / 심사일: 2012. 1. 20~2. 6 / 게재확정일: 2012. 2. 10